

# 제2과

##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가?

### I. “천국”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었다.

#### 1. 일차적 수신자: 유대인

#### 2. 내용

예수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 이를 위해 예수의 족보와 탄생,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 3. “천국”

##### 1) 마태복음 외 사용

딤후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2)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4회 사용 (12:28, 19:24, 21:31, 43)

마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19: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21: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21: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 II. 천국에 대한 오해의 출발

### 1.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

십계명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20:7)

“여호와”(יהוה): 완곡어법으로 아도나이(אֲדֹנָי) 또는 하늘(눅15:21)이라고 표현

눅15: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 2.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해와 그 결과

- 1) 한자 문화권에서 하늘나라(天國)로 번역했다. 천당(天堂)은 유일한 한국적 표현이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가서 살게 될 극락 같은 공간적 장소로 오해하게 되었다.
- 2) 그러면 이 세상은 천국 가기전의 대기실과 같은 곳이 되고, 신앙과 삶의 분리가 일어났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 천당으로 번역 표현됨으로써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본질(신앙과 삶의 통합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잘못된 성(聖), 속(俗)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 III.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 1. 하나님 나라의 개념

- 1) 나라 (히브리어 “מְלָכָה” (말쿠트) / 헬라어 “βασιλεια” (바실레이아): 통치, 지배, 왕권, 치세의 뜻
- 2) 하나님 나라란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역동적인 의미이다.

### 3)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 (눅17:20-21)

눅17:20~21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0절 “너희 안” 이라는 전치사 (έντός ύμων 엔토스 휘몬)는 ‘in’이 아니라 ‘among’이다. 즉 예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즉,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4) 죽어서 가는 천국: 실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곳에 존재

## 2.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주어지는 결과

- 1)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가정, 일터,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한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 2) 聖俗의 개념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 3) 따라서 기독교는 교회 예배당 건물이나 형식과 제도에 매여 있거나 갇혀 있을 수 없다. 내 개인의 영혼 속에 갇혀 있는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역 (잘못된 인간 사회, 조직구조, 체계, 자연환경)에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타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을 품어야 한다.

## 결론

1. 나는 이 세상을 천국 가기 전의 대기실로 이해하고 이기적이고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 않는가?
2. 내가 지금 서 있는 가정, 일터,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일에 철저히 헌신해야 한다.

#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